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12. 16

Vol. 33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12월 16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¹⁾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이채정

요약

I. 분석개요

II.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의 분포 분석

III.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의 분포 분석

IV. 시사점

참고문헌

¹⁾ 본 자료는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평가」보고서(이채정·노법래·탁현우·양경은·오민지·양정윤·조희찬 저)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저출생이 지속되고 초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
 - 서비스에 대한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을 측정하고,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 분포의 어떠한 속성과 지역적 특성이 상호관련성이 높은지 검토
 -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
 - 차원축약 기법 가운데 하나인 다중대응분석(MCA)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패턴을 요약적으로 검토하고, MCA 결과는 지역과 서비스 기관별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 간 관련성을 좌표평면 상에 제시하여 어떤 속성과 지역이 상호관련성이 높은지 파악
-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의 경우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 포착
 -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나, 소외 수준은 규모가 작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개
 -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남 및 경남 일부 지역은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전반적으로 경쟁 수준은 대도시권에서 높았고, 소규모 지역에서는 경쟁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

□ 지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포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 실시한 다중대응분석(MCA) 결과, 주요한 연관 구조(차원)와 전형성을 보이는 지역 포착

○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와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분포는 서로 상반된 지역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조정이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

○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지역별로 높은 경쟁 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이 함께 나타나며,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경우는 지역별로 낮은 경쟁 수준과 높은 배제 수준이 짝을 이룰 가능성이 높음

- 서울은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낮은 배제와 높은 경쟁을 동시에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지만, 경북과 경남은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의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의 경우 세종, 제주 지역은 배제와 경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강원과 충북은 낮은 경쟁과 낮은 배제를 보이는 특징이 관찰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요 사회서비스 공급의 조정 필요성 검토

○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을 억제하고 지역적 편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서비스 확충 전략 필요

○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는 대도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으며,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주로 강원과 충북의 인구가 적은 시군구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I. 분석개요

- 인구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인구집단에 해당하는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포 분석
 -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연구는 주로 행정단위로 취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공급에서의 부족과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
 - 기존 연구는 많은 경우 행정구역별로 기관 수와 관련 인구 수의 상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수행
 - 저출생이 지속되고 초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
 - 지역 단위 분석은 아동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노인서비스(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병원²⁾)의 최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주소록을 지오코딩(geocoding)하고 일정 반경(근린생활권 700m, 소생활권 2km, 중생활권 5km) 내 거주하는 서비스 대상 인구집단의 분포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
 - 어린이집 위치 정보는 어린이집 정보 공개포털의 2020년 6월 말 기준 어린이집 기본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유치원 정보와 초등학교 정보는 KESS 교육통계서비스의 2019년 10월 기준 유치중등교육기관 주소록을 사용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공동생활가정 정보는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된 보건복지부

2) 노인 대상 서비스는 노인에 대한 돌봄을 사회화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주야간보호서비스,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요양병원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만, 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즉,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경쟁관계이자 대체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의 분포와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분포와 격차 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황자료(“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를 통해 수집하였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2021년 3월 기준 전국 병원 현황자료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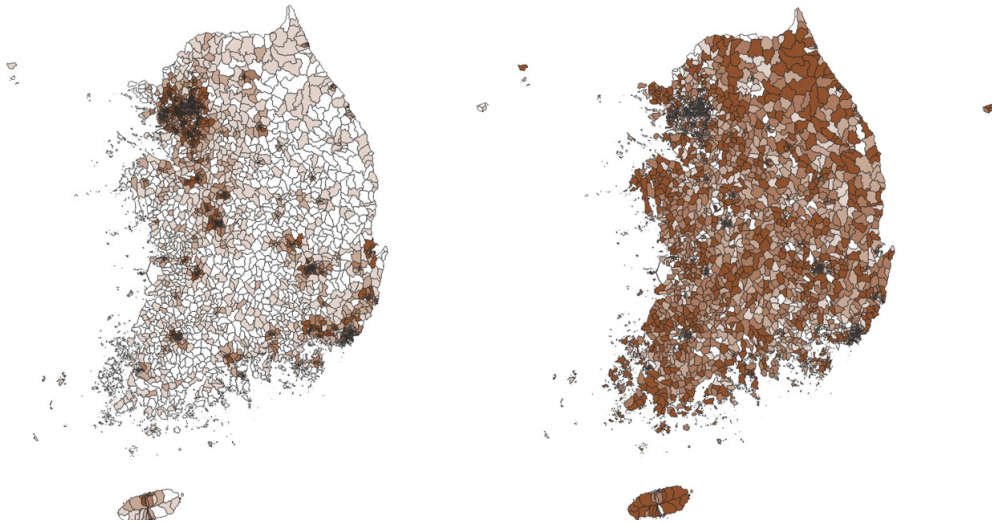
- 서비스에 대한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을 측정하고,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 분포의 어떠한 속성과 지역적 특성이 상호관련성이 높은지 검토
 -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
 - 차원축약 기법 가운데 하나인 다중대응분석(MCA)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패턴을 요약적으로 검토하고, MCA 결과는 지역과 서비스 기관별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 간 관련성을 좌표평면 상에 제시하여 어떤 속성과 지역이 상호관련성이 높은지 파악

II.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의 분포 분석

1.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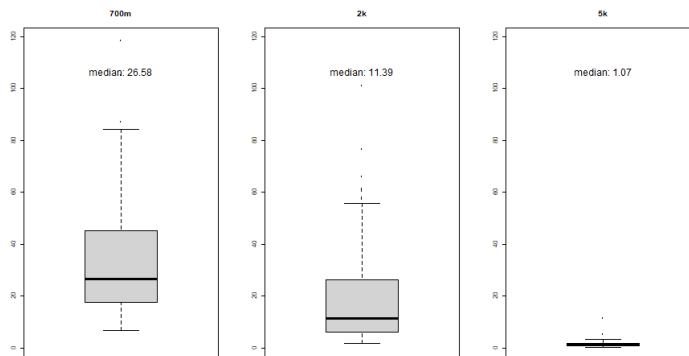
- 근린 생활권(반경 700m 이내)을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면, 어린이집은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서비스의 잠재적 수요가 분포
 -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의 분포(그림(좌))를 보면,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립·운영
 - 지역 내 서비스 대상 인구(0~9세 아동)를 고려한 어린이집 개소당 서비스 대상 인구의 분포(그림(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서비스의 잠재적 수요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

[보육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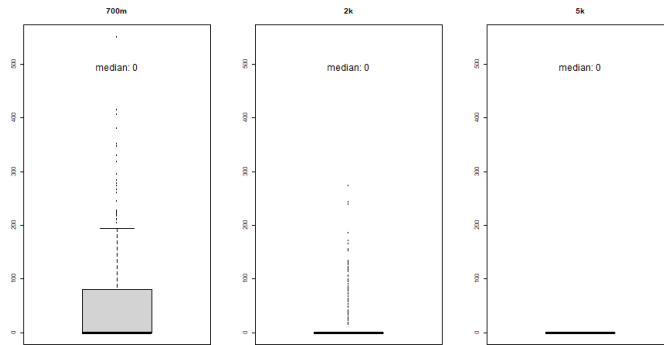
-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가 근린생활권 내 아동에게 공급된다는 전제로 서비스 경쟁 수준을 살펴보면, 중위값이 26.58로 어린이집 개소당 약 27명의 아동 담당
- 보육서비스의 공급 거리를 소생활권(반경 2km)이나 중생활권(반경 5km)까지 확장하면, 중위값은 각각 11.39와 1.07로 하락

[생활권별 보육서비스의 경쟁 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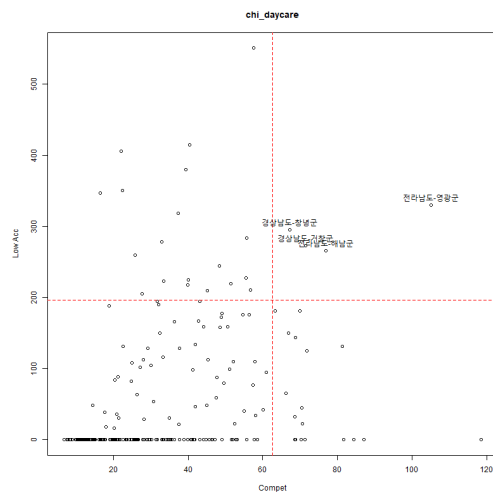
-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의 수를 의미하는 소외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위값이 0에 수렴

[생활권별 보육서비스의 소외 수준 분포]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을 중심으로 산포도를 그리면, 전라남도 영광군과 해남군, 경상남도 창녕군과 거창군은 보육서비스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 지역 내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

[보육서비스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도]



주: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평균에 1.5SD를 더한 값을 점선으로 표시

- 경쟁 및 소외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유형별 분포 파악
- 서울은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이 96%이며, 대다수 광역시는 경쟁 수준에 비하여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

[보육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의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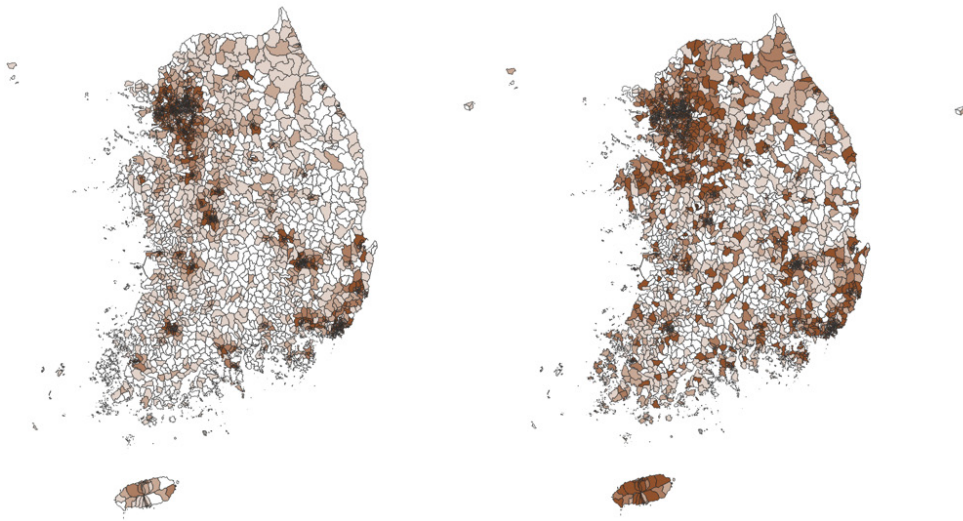
지역	oo	Ho	oH	HH	Total
서울특별시	0.00	4.00	96.00	0.00	100
부산광역시	0.00	12.50	87.50	0.00	100
대구광역시	0.00	25.00	75.00	0.00	100
인천광역시	10.00	30.00	60.00	0.00	100
광주광역시	0.00	0.00	100.00	0.00	100
대전광역시	0.00	0.00	100.00	0.00	100
울산광역시	0.00	60.00	40.00	0.00	100
세종특별자치시	0.00	100.00	0.00	0.00	100
경기도	0.00	38.10	59.52	2.38	100
강원도	33.33	38.89	16.67	11.11	100
충청북도	42.86	35.71	14.29	7.14	100
충청남도	50.00	25.00	25.00	0.00	100
전라북도	46.67	6.67	20.00	26.67	100
전라남도	68.18	18.18	9.09	4.55	100
경상북도	75.00	12.50	4.17	8.33	100
경상남도	36.36	9.09	27.27	27.27	100
제주특별자치도	0.00	100.00	0.00	0.00	100

주: oo는 경쟁 수준 및 소외 수준 모두 낮은 경우, Ho는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oH는 소외 수준이 높은 경우, HH는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

2. 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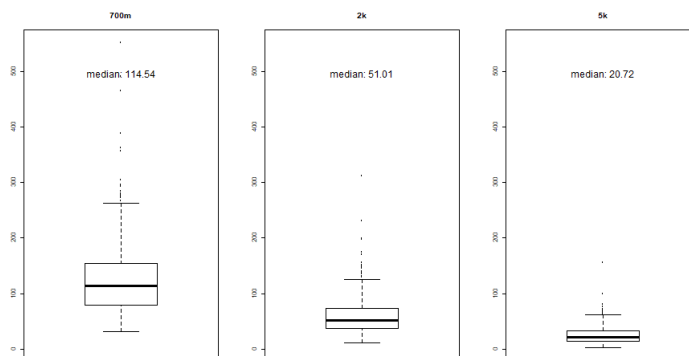
- 근린생활권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면, 유치원은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도시 외에도 유아교육서비스의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 존재
 - 근린생활권 내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의 분포(그림(좌))를 보면,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치원 설립·운영
 - 지역 내 서비스 대상 인구를 고려한 유치원 개소당 서비스 대상 인구의 분포(그림(우))를 살펴보면, 대도시 외에도 서비스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 존재
 - 서비스 공급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도 서비스 대상 인구가 많아서 유치원 개소당 아동 인구가 높게 나타남

[유아교육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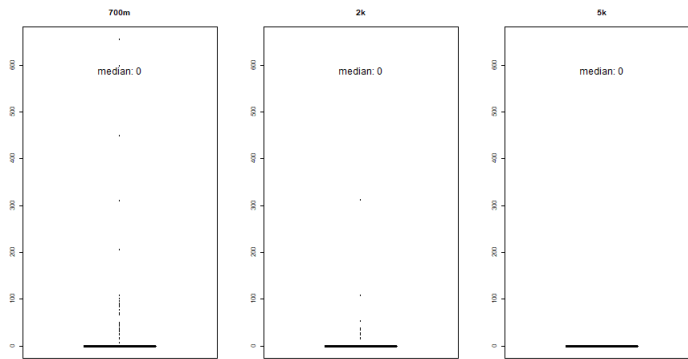
- 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서비스가 근린생활권 내 아동에게 공급된다는 전제로 서비스 경쟁 수준을 살펴보면, 중위값이 114.54로 유치원 개소당 약 115명의 아동 담당
- 유아교육서비스의 공급 거리를 소생활권(반경 2km)이나 중생활권(반경 5km)까지 확장하면, 중위값은 각각 51.01과 20.72로 하락

[생활권별 유아교육서비스의 경쟁 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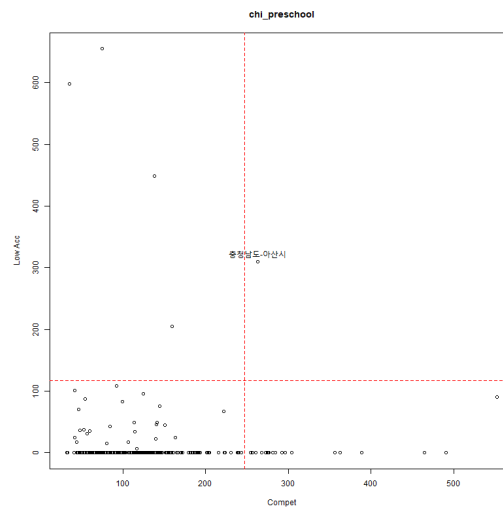
- 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의 수를 의미하는 소외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아교육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위값이 0에 수렴

[생활권별 유아교육서비스의 소외 수준 분포]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을 중심으로 산포도를 그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유아교육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과 경쟁이 높은 지역이 공존하는 경우 확인
- 충청남도 아산시: 개별 유치원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이 많은 지역과 근린생활권 내에서 유아교육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공존

[유아교육서비스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도]



주: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평균에 1.5SD를 더한 값을 점선으로 표시

- 경쟁 및 소외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유형별 분포 파악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낮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강원도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역 내 유치원 설립이나 유치원 규모 모두 부족
-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는 경쟁 수준은 낮지만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이 80%를 구성하고 있어, 지역 내 유아교육서비스 공급을 보다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

[유아교육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의 시도별 분포]

지역	oo	Ho	oH	HH	Total
서울특별시	4.00	0.00	28.00	68.00	100
부산광역시	6.25	6.25	50.00	37.50	100
대구광역시	0.00	0.00	37.50	62.50	100
인천광역시	0.00	10.00	40.00	50.00	100
광주광역시	0.00	0.00	80.00	20.00	100
대전광역시	0.00	0.00	60.00	40.00	100
울산광역시	20.00	0.00	20.00	60.00	100
세종특별자치시	0.00	0.00	0.00	100.00	100
경기도	2.38	2.38	26.19	69.05	100
강원도	16.67	5.56	38.89	38.89	100
충청북도	7.14	0.00	50.00	42.86	100
충청남도	6.25	0.00	43.75	50.00	100
전라북도	0.00	6.67	80.00	13.33	100
전라남도	4.55	9.09	68.18	18.18	100
경상북도	8.33	33.33	37.50	20.83	100
경상남도	9.09	9.09	45.45	36.36	100
제주특별자치도	0.00	0.00	0.00	10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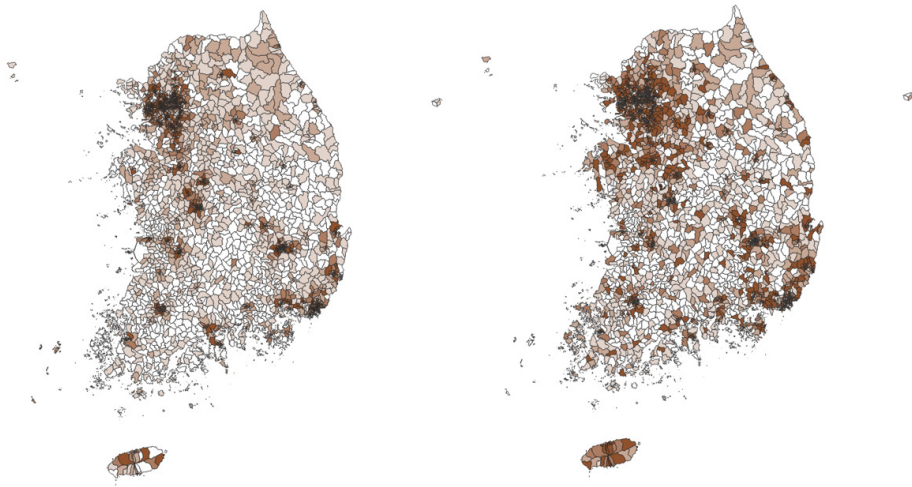
주: oo는 경쟁 수준 및 소외 수준 모두 낮은 경우, Ho는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oH는 소외 수준이 높은 경우, HH는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

3. 초등돌봄체계(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의무 교육 과정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학거리 1.5km 이내에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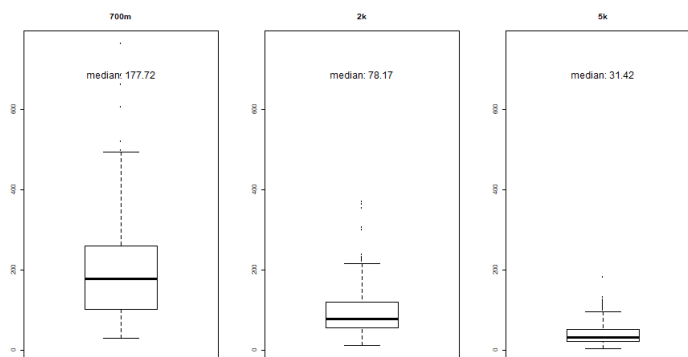
- 근린생활권을 기준으로 초등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읍면동의 분포나 초등학교 개소당 아동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와 유사
-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도시 지역 외에도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 존재

[초등돌봄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



-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쟁 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근린생활권인 700m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위값이 177.72로, 초등학교당 약 178명의 아동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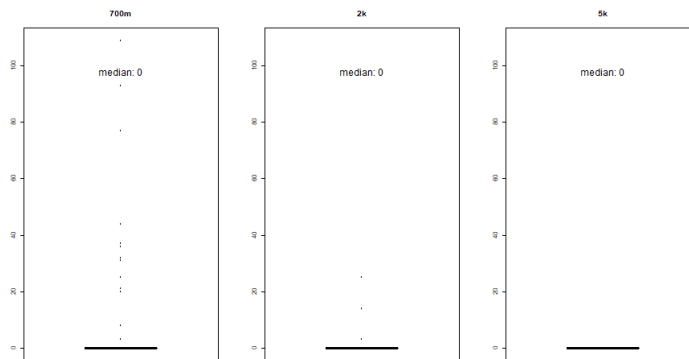
[생활권별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쟁 수준 분포]



□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5km 수준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하여 소외 수준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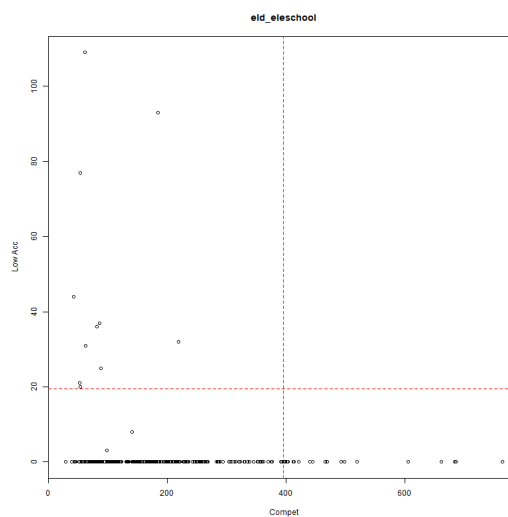
○ 특히, 근린생활권 수준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

[생활권별 초등돌봄서비스의 소외 수준 분포]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을 중심으로 산포도를 그리면,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돌봄서비스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도]



주: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평균에 1.5SD를 더한 값을 점선으로 표시

- 의무교육과정과 통학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의 비중은 낮음

[초등돌봄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의 시도별 분포]

지역	oo	Ho	oH	HH	Total
서울특별시	0.00	64.00	0.00	36.00	100
부산광역시	0.00	50.00	0.00	50.00	100
대구광역시	0.00	62.50	0.00	37.50	100
인천광역시	0.00	70.00	0.00	30.00	100
광주광역시	0.00	60.00	0.00	40.00	100
대전광역시	0.00	40.00	0.00	60.00	100
울산광역시	0.00	100.00	0.00	0.00	100
세종특별자치시	0.00	100.00	0.00	0.00	100
경기도	0.00	83.33	2.38	14.29	100
강원도	0.00	22.22	11.11	66.67	100
충청북도	0.00	50.00	0.00	50.00	100
충청남도	0.00	50.00	0.00	50.00	100
전라북도	0.00	13.33	6.67	80.00	100
전라남도	0.00	13.64	9.09	77.27	100
경상북도	4.17	25.00	20.83	50.00	100
경상남도	4.55	40.91	0.00	54.55	100
제주특별자치도	0.00	100.00	0.00	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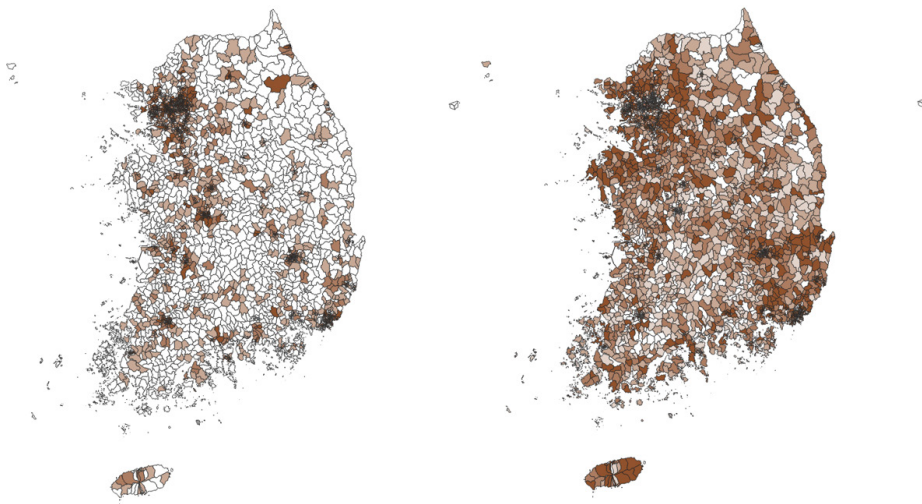
주: oo는 경쟁 수준 및 소외 수준 모두 낮은 경우, Ho는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oH는 소외 수준이 높은 경우, HH는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

III.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의 분포 분석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1: 주야간보호서비스

-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달리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주야간보호센터로 이동하여 일정 시간 동안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
-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보호센터가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 공급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야간보호센터 공급이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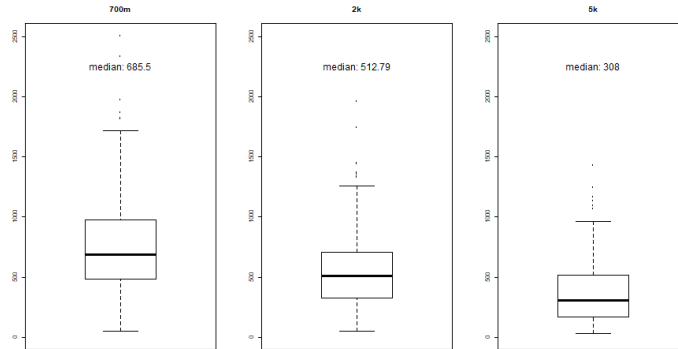
[주야간보호서비스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



- 주야간보호서비스가 근린 생활권 내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고 전제하고 서비스 경쟁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값이 685.5로, 주야간보호센터 1개소당 약 68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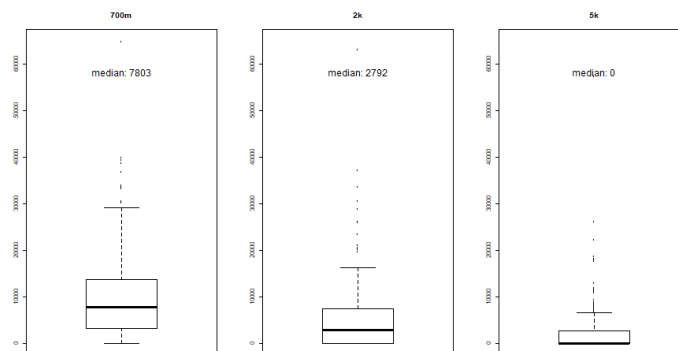
- 주야간보호서비스가 반경 2km나 5km까지를 이용권으로 상정하여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중위값은 각각 512.8과 308.0으로 감소

[생활권별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쟁 수준 분포]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의 수를 나타내는 소외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이용권을 5km로 상정할 경우에는 중위값이 0에 수렴하지만, 근린생활권이나 반경 2km를 전제할 경우에는 중위값이 각각 7803과 2792로 산출되어, 상당수의 노인 인구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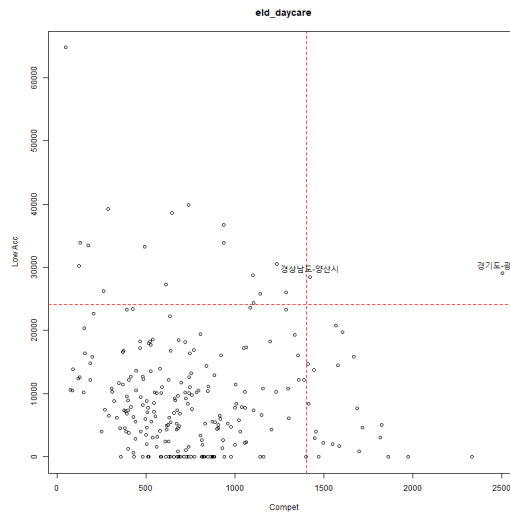
[생활권별 주야간서비스의 소외 수준 분포]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을 중심으로 산포도를 그리면, 시군구 내에서도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지역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쟁이 높은 지역이 공존하는 경우를 확인

- 경남 양산시와 경기 광주시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수요 집단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근린생활권 내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읍면동이 동일한 관내에 공존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도]



주: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평균에 1.5SD를 더한 값을 점선으로 표시

- 경쟁 및 소외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유형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노인 대상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 시도 단위에서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낮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주야간보호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의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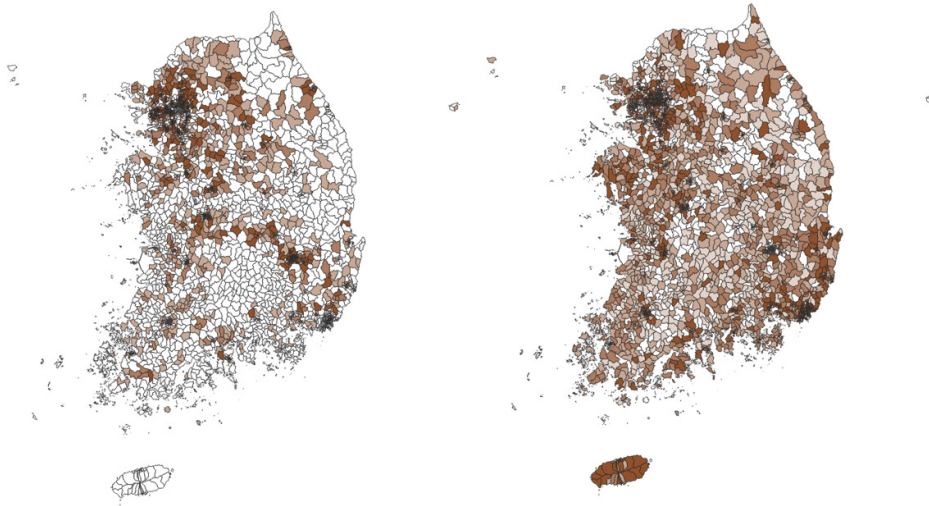
지역	oo	Ho	oH	HH	Total
서울특별시	4.00	60.00	36.00	0.00	100
부산광역시	43.75	31.25	6.25	18.75	100
대구광역시	50.00	37.50	12.50	0.00	100
인천광역시	30.00	30.00	30.00	10.00	100
광주광역시	0.00	0.00	80.00	20.00	100
대전광역시	0.00	60.00	40.00	0.00	100
울산광역시	20.00	80.00	0.00	0.00	100
세종특별자치시	100.00	0.00	0.00	0.00	100
경기도	36.59	46.34	14.63	2.44	100
강원도	0.00	0.00	70.59	29.41	100
충청북도	23.08	38.46	15.38	23.08	100
충청남도	31.25	18.75	0.00	50.00	100
전라북도	7.69	15.38	15.38	61.54	100
전라남도	15.79	10.53	47.37	26.32	100
경상북도	19.05	0.00	14.29	66.67	100
경상남도	25.00	0.00	15.00	60.00	100
제주특별자치도	50.00	0.00	0.00	50.00	100

주: oo는 경쟁 수준 및 소외 수준 모두 낮은 경우, Ho는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oH는 소외 수준이 높은 경우, HH는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2: 노인공동생활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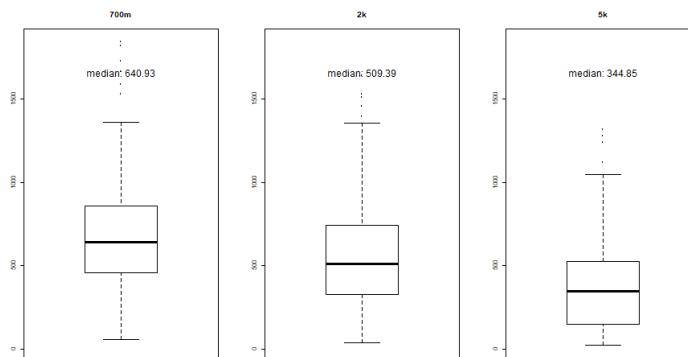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9명 내외까지 수용하는 소규모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설급여 제공 기관
-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경우 공급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지역은 노인 인구 대비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개소 수가 충분치 않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

[노인공동생활가정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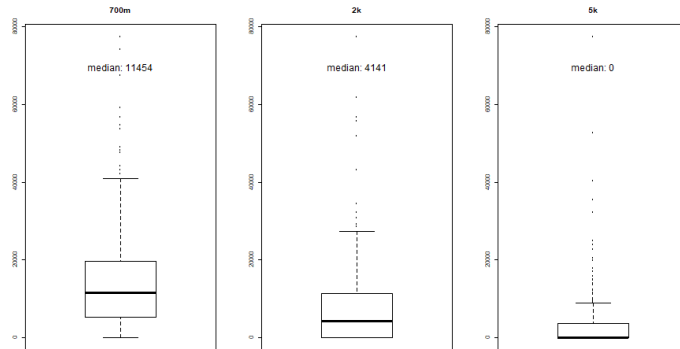
- 근린생활권 내의 노인이 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한다고 전제하고 서비스 경쟁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값이 640.93으로, 주야간보호센터 1개소당 약 64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실정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이 개소당 9명이라는 점과 개별 노인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일부 노인만이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해당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
-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반경 2km나 5km까지를 이용권으로 상정하여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중위값은 각각 509.39와 344.85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생활권별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쟁 수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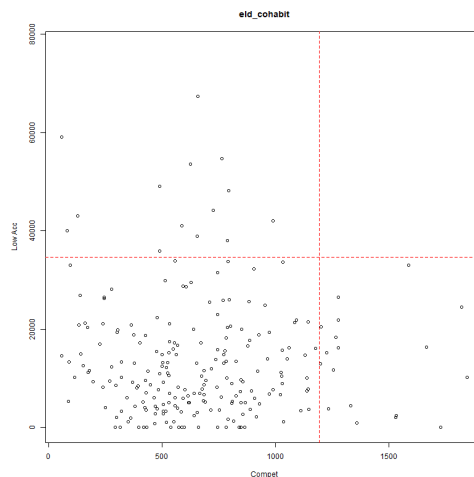
-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의 수를 나타내는 소외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권을 5km로 상정할 경우에는 중위값이 0에 수렴하지만, 근린 생활권이나 반경 2km를 전제할 경우에는 중위값이 각각 11454와 4141로 산출되어, 상당수의 노인 인구가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는 데 한계

[생활권별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소외 수준 분포]



- 시군구 내에서도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지역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쟁이 높은 지역이 공존하는 경우를 확인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개별 시군구 관내에서 경쟁 수준이 높은 읍면동과 소외 수준이 높은 읍면동이 공존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남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도]



주: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평균에 1.5SD를 더한 값을 점선으로 표시

□ 경쟁 및 소외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유형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일부 지역은 관내 노인의 장기요양등급별 분포를 고려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 시도 단위에서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낮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공동생활가정 경쟁 및 소외 수준의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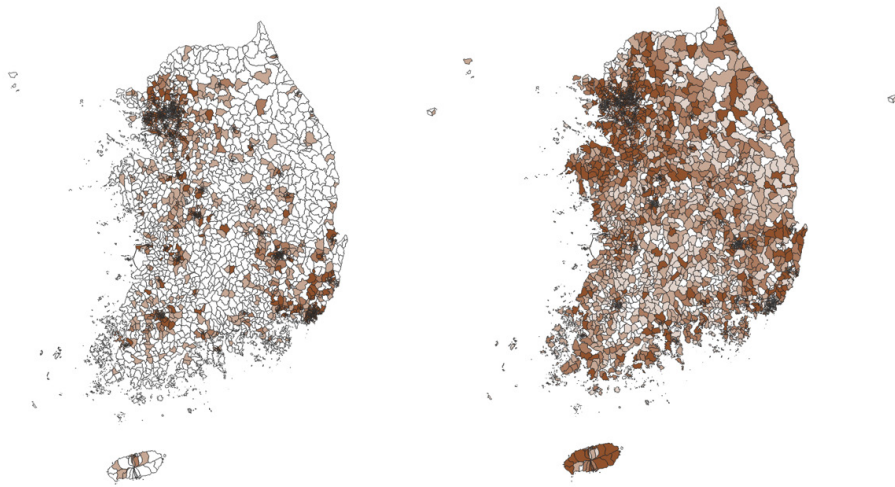
지역	oo	Ho	oH	HH	Total
서울특별시	24.00	20.00	8.00	48.00	100
부산광역시	0.00	18.18	27.27	54.55	100
대구광역시	50.00	25.00	0.00	25.00	100
인천광역시	50.00	40.00	0.00	10.00	100
광주광역시	0.00	0.00	80.00	20.00	100
대전광역시	0.00	60.00	20.00	20.00	100
울산광역시	0.00	20.00	40.00	40.00	100
세종특별자치시	0.00	0.00	100.00	0.00	100
경기도	14.63	43.90	17.07	24.39	100
강원도	57.14	21.43	14.29	7.14	100
충청북도	38.46	53.85	0.00	7.69	100
충청남도	20.00	20.00	20.00	40.00	100
전라북도	40.00	6.67	26.67	26.67	100
전라남도	47.62	14.29	28.57	9.52	100
경상북도	36.36	13.64	36.36	13.64	100
경상남도	11.76	11.76	47.06	29.41	100
제주특별자치도	50.00	0.00	0.00	50.00	100

주: oo는 경쟁 수준 및 소외 수준 모두 낮은 경우, Ho는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oH는 소외 수준이 높은 경우, HH는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

3. 요양병원

- 요양병원은 주야간보호센터나 노인공동생활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 한국의 경우 요양병원이 노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관찰
- 요양병원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난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경우 요양병원의 공급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양병원 공급(좌)과 경쟁 수준(우)의 공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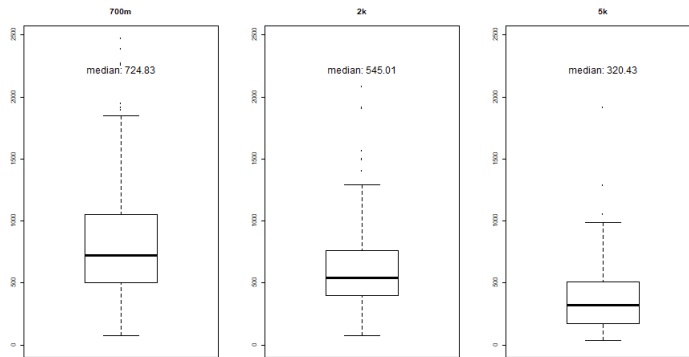


- 근린생활권 내의 노인이 주로 요양병원을 이용한다고 전제하고 서비스 경쟁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값이 724.83으로, 요양병원 1개소당 약 72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분포
-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는

노인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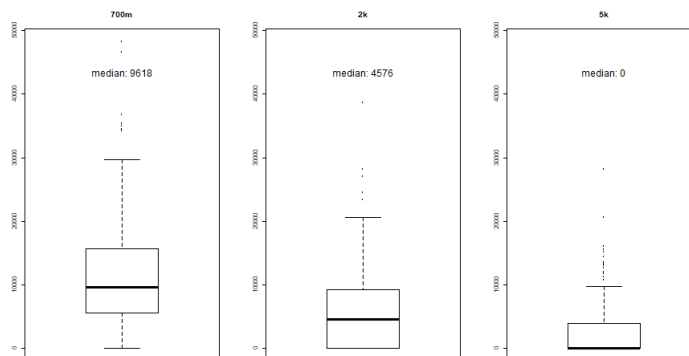
- 반경 2km나 5km까지 거주하는 노인이 요양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제하면, 중위값은 각각 545.01과 320.43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생활권별 요양병원의 경쟁 수준 분포]



-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의 수를 나타내는 소외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용권을 5km로 상정할 경우에는 중위값이 0에 수렴하지만, 근린 생활권이나 반경 2km를 전제할 경우 중위값이 각각 9,618과 4,576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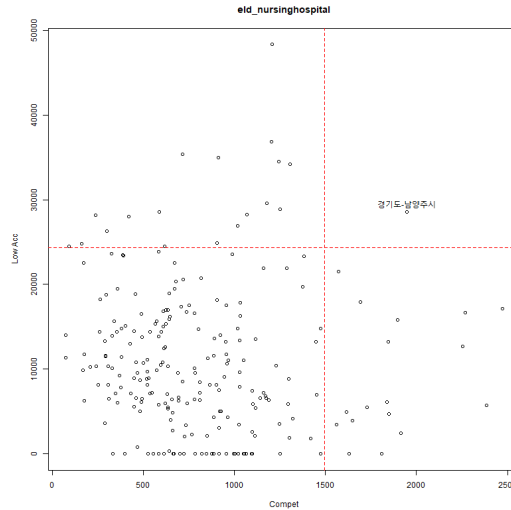
[생활권별 요양병원의 소외 수준 분포]



- 시군구 내에서도 요양병원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지역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쟁이 높은 지역이 공존하는 경우를 확인

-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요양병원의 잠재적 수요 집단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근린생활권 내 요양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동일한 관내에 공존

[요양병원의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산포도]



주: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의 평균에 1.5SD를 더한 값을 점선으로 표시

- 경쟁 및 소외 수준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유형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일부 지역은 관내 노인의 요양병원 수요와 다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간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해당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시도 단위에서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낮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 경쟁 수준과 소외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 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요양병원 경쟁 및 소외 수준의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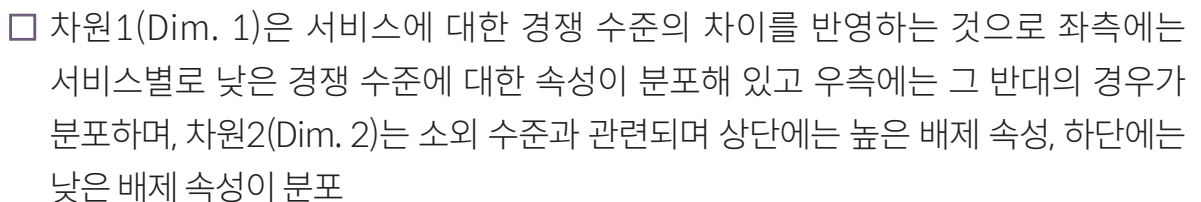
지역	oo	Ho	oH	HH	Total
서울특별시	0.00	12.50	50.00	37.50	100
부산광역시	37.50	6.25	0.00	56.25	100
대구광역시	37.50	0.00	25.00	37.50	100
인천광역시	11.11	22.22	22.22	44.44	100
광주광역시	20.00	20.00	0.00	60.00	100
대전광역시	40.00	20.00	20.00	20.00	100
울산광역시	40.00	0.00	0.00	60.00	100
세종특별자치시	0.00	100.00	0.00	0.00	100
경기도	7.32	12.20	39.02	41.46	100
강원도	25.00	33.33	25.00	16.67	100
충청북도	25.00	33.33	16.67	25.00	100
충청남도	13.33	33.33	26.67	26.67	100
전라북도	8.33	58.33	8.33	25.00	100
전라남도	47.62	42.86	9.52	0.00	100
경상북도	33.33	47.62	14.29	4.76	100
경상남도	19.05	61.90	0.00	19.05	100
제주특별자치도	0.00	50.00	50.00	0.00	100

주: oo는 경쟁 수준 및 소외 수준 모두 낮은 경우, Ho는 경쟁 수준이 높은 경우, oH는 소외 수준이 높은 경우, HH는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

IV. 시사점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하기 위하여, MCA(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를 활용하여 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과 지역 간 관련성을 축약하여 검토
 - 가깝게 위치할수록 속성(class) 간 동시성(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MCA는 카테고리 변수에 속하는 하위 속성(class) 간 상관관계의 크기를 차원 축약 과정을 통해 거리 개념으로 치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서비스 경쟁 및 소외 수준과 지역 간 관련성에 대한 MCA 결과]



- 28 _ Vol. 33

□ MCA를 활용한 차원 축약 과정에서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 도출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
- 서울특별시는 아동 서비스에서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배제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
-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노인 서비스에서 낮은 경쟁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
-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아동 서비스에서 배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 관찰

□ 소외 수준과 경쟁 수준의 지역 조합에서 아동과 노인 서비스의 경향에 차이

- 노인 서비스의 경우 소외 수준이 높으면 경쟁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지만, 아동 서비스의 경우는 높은 경쟁 수준을 보이는 지역은 반대로 낮은 소외 수준을 보임
 -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에 내에도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소외 수준이 높은 지역)가 있음을 의미하고,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아동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경쟁 수준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
- 이는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
 -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
 - 지역별 노인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결성을 높이거나,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동 인구의 분포가

낮은 지역이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수준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국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아동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여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국가가 민간 시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수요에 적합한 수준의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아동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수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본권 실현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

참고문헌

- 감정기·김은자·남정자(2007), 「경남지역 재가 장애아동의 재활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다중사례연구」, 인문논총21, pp. 76~106.
- 강주희·윤순덕(2008),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농촌사회, 18(1), pp. 161~187.
- 김근세·김대건·이명석(2013), 「저출산·고령 정책의 행정자원과 휴먼서비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1), 103~130.
- 김병석·서원석(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pp. 1~14.
- 김승희(2015), 「복지수준의 지역간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책적 접근」, 주거환경, 13(1), pp. 165~180.
-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pp. 227~256.
- 김연희(2013),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pp. 189~216.
- 김정현·김가희·김보영(2015), 「사회복지시설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pp. 1~181.
- 김희연·강민아(2018), 「대도시 미충족의료와 지역 맥락효과에 관한 다수준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1), pp. 111~141.
- 박세경·이정은·신수민·양난주(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박세경(2014), 「사회 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보건복지포럼, 216, pp. 65~82.
- 박세경(2018), 「사회 서비스 부문 주요 정책 현안과 쟁점 :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2018. 5. 25. 미래 사회보장 구상 포럼 발표 자료집(미발간).
- 서창교·황채영(2013), 「전국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평가」, 한국장애인복지학, 21, 1-18.
- 성은미·백승호·조춘범(2009), 「경기도 민간복지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복지재단 보고서.
- 성은미·김세원·백민희(2014), 「경기도 시·군별 복지자원 분석연구」, 경기복지재단 보고서.
- 엄진영·안석·김윤진(2019),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영성·임영광(2012),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정책연구, pp. 1~155.
- 윤의영(2009), 「경기도 지역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 격차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6), pp. 774~788.
- 이경은·이은정·이철우(2014), 「아동복지 수요공급 격차에 따른 지역구분과 지역아동센터의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48, pp. 119-145.
- 이선영(2013), 「한국과 일본 노인장기요양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분석 -다른 사회서비스 인프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966~980.
- 이성림(2015),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과 소비 격차」, 한국인구학, 38(2), pp. 85~111.

- 이윤경·염주희·이선희(2013),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이채정·이유현·서경영·홍희정·이수진·안지선(2020),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이현주(1998), 「사회복지이용시설 접근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연구, 12, pp. 111~129.
- 임석회(2009),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시설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건지리학회지, 19(4), pp. 1~14.
- 장한나(2016), 「치매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지역격차 연구: 2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2), pp. 385~420.
- 장한나·윤기찬(2016), 「광역자치단체별 노인인구변동과 사회보장커버리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8(3), pp. 1~23.
- 정홍원·강지원·김보영·이민경(2015),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조규환(2008),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에 관한 연구-농촌지역의 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동의대 사회복지 석사 논문.
- 조영훈(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2), pp. 1-19.
- 최용환(200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최은영·구동회(2012), 「부산의 인구 변동 요인과 인구 구조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6(3), pp. 333~345.
- 하능식·신두섭(2014),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경제연구, 32, pp. 207~237.

- 함영진·김희성·김태은·이석환·최항성·최조순·홍진이·권영빈·김진영(2018),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현승현·김선엽(2014), 「지방자치단체 빈곤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결정 요인 및 지역격차 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pp. 213~240.
- 홍현미라(2008), 「사회복지시설의 공간접근성에 관한 실증연구 - 거리측정과 시간거리측정에 대한 비교분석 -」, 사회복지연구, 37, pp. 35~6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후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 질 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 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 이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nafi.re.kr (미래연구-미래보고서-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